

보도시점 (전매체) 7. 31.(수) 10:00

해외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 개소

-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한번에(원스톱) 지원하는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 개소식 개최
-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진출 관문을 넓히고,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정착 및 성장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1일(수)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텃스타운에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씀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로 시작하였고,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하여 (주)태그하이프의 판카즈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하였다.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를 개편하여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한다. 이는 작년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에서 발표된 창업비자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학력이나 지식재산권 등 정량적 요건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혁신성과 사업성 평가를 공공이 아닌 민간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세부운영방안 마련 후 2024년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창업비자 취득) 기술성·사업성 등이 우수한 사업모델 보유한 외국인에게 창업비자 부여

해외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발굴경로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가 유일한 발굴경로였으나, 국제적(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 및 투자자 등을 'K-스카우터'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발굴활동을 전개하고,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국내유입 및 정착을 지원한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정착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임시 사무공간 및 회의실을 제공하고,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한다. 외국어 능통 전문가가 상주하여 창업 뿐만 아니라 거주 및 생활 등에 대해 상시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법률·특허 및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취득 지원을 위해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비자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밀착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을 일괄 지원한다.

*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으로 총 9개 과정별로 창업비자 취득에 필요한 점수 획득

아울러, 외국인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GSC 홈페이지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최신 산업·기술 동향, 각종 창업지원사업 등 외국인 창업가에 필요한

정보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투자유치발표(IR 피칭) 교육 및 소규모 투자상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외국인 창업자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연 2회 이상)하여 국내 우수인력과 외국인 창업기업간 인력 매칭도 지원한다. 또한, 대·중견기업 및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등과 기술협력 등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유치이자 인재유치이며,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한국에서 창업하고 성공하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 중기부가 든든한 협력자(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담당부서	창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진수웅 (044-204-7680)
	글로벌창업팀	담당자	사무관	김택선 (044-204-7682)

